# 안테나

김동진 편집장

## AI 방역기준 강화 발표

### 대형 신란계 농장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 의무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가 AI특별방역기간이 끝난 시점인 4월에도 발생이 이어지면서 AI와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73건(산란계 23건, 육계 3건)의 농장 발생이 있었고, 일본은 84건(산란계 61건, 육계 12건)의 농장 발생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해 정부에서는 AI방역기준을 개선하면서 한층 강화된 조치를 발표하였다. 주요 내용을 보면 고병원성 AI 등 가축전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메추리 · 칠면조 등 기타 가금 시설 기준이 강화되며, 대형 산란계 농장에 터널식 소독시설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한 농장주 개인 소유 승용차의 축산차량 등록도 의무화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을 공포(4월 18일)하고 3개월 후인 7월 19일에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독설비 및 방역시설의 설치기준과 축산차량 등록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은 축산 농가 등 관계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홍보와 시설 준비 기간을 충분히 두도록 공포된 날부터 6개월 후인 2023년 10월 19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2006년부터 메추리 · 칠면조 등 기타 가금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총 28건(메추리 18건, 칠면조 3, 거위 2, 타조 1, 꿩 1, 기러기 3) 발생하여 기타 가금에 대해서도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전파 위험성이 제기되어 왔다. 따라서 정부는 동 규정을 통해 기타 가금도 닭 · 오리와 같은 수준의 소독설비와 방역시설 기준을 갖추도록 하여 방역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산란계 터널식 소독시설 의무설치'는 10만수 이상 사육하는 산란계농장에 해당되며, 정부는 대규모 산란계 농장 특별 관리를 위해 U(유)자형 소독설비보다 더욱 소독 효과가 좋은 터널식 소독시설 원칙적으로 구비하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그동안 농장내 운영하는 화물차에만 적용하던 축산차량 등록 의무를 농장주 등의 승용

차량이나 승합차량까지 확대하여 적용키로 하였다.

이번 규정은 AI특별방역기간이 시작되는 10월부터 전면 시행되기 때문에 시설이 미비한 농장이나 차량등록이 안된 농장은 서둘러 신고를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는 농가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추가비용이 드는 부분도 있는 만큼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또한 CCTV설치 범위 확대, 개인차량 등록 등이 추가되면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게 되었다.

## 치킨 3만원 시대 눈앞

### 소비감소로 이어져 '서민간식' 타이틀 실종 우려

치킨가격이 생계가격 인상, 원자재가격 상승 등의 이유를 들어 프랜차이즈업계 재계 2위인 K업체가 가격인상을 하면서 이제 치킨을 시켜 먹으려면 3만원 가까이 지불해야 하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아직 다른 업체들은 인상계획이 없다는 반응이지만 과거 한 업체가 가격을 올리면 도미노처럼 가격이 인상된 예를 볼 때 예의주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에도 프랜차이즈업계에서 3만원시대 치킨을 언급했다가 생산자들은 물론 정부로부터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을 받으면서 비난의 대상이 되었던 사례가 있었다.

치킨 가격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공방이 이어져 왔다. 2015년도에는 치킨업계에서 치킨가격을 2만원대로 올리는 일이 있으면서 본회를 비롯한 생산자들로부터 가격인하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기도 하였다. 지난해에는 모 마트에서 1만원 이하의 치킨을 판매하면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그 때마다 치킨 가격에 대한 원가공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던게 사실이다. 최근 생산원가가 높아지고 닭들의 수요공급이 불균형을 이루면서 생계가격이 2,600원/kg(대닥기준)까지 올라 치킨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도계장 기준 통닭 1마리에 4천원 전후에 판매되는 닭들이 치킨으로 둔갑해 3만원에 판매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기도 하다.

생산자들과 치킨업계어서는 치킨 가격이 높다고 좋아할 일만은 아니다. 소비자들이 서민식품을 외면하고 소비감소로 이어지게 되면서 결국 닭이 과잉생산되어 농가 수입은 줄어들게 된다. 닭가공 업체들이 새로운 대안으로 소비자들이 집에서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비교적 싼 가격의 다양한 부위별 제품을 출시하면서 고가격 치킨시대를 견제하고 나서면서 새로운 트랜드를 창출하고 있다. 치킨업계의 무조건적인 가격상승으로 '서민간식' 치킨의 명성을 빼앗아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양계